사회복지법인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꿈의 일터"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비장애인의 경우 당연시 되는 노동도 장애인은 10배 20배 더 많은 노력을 해야만 기회가 주여 진다. 좁은 취업구멍을 통과해 얻어진 직장을 통해 장애인은 사회와 소통하고 비장애인들과 생활을 한다. 가정에서의 역할도 마찬가지이다. 경제활동을 통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장애인이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에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인쇄업체중 장애인이 운영 및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너머 – 인쇄분야'를 탐방했다.

사회에서 노동을 하기 위해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를 한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공부할수록 더 전문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일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하다. 일을 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 돼 할 수 없기에 더 그러하다. 장애인권리선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장애인은 경제 사회적 보장을 받아 정당한 생활수준을 보유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은 그 능력에 따라서 보장을 받고 고용되고 또는 유의하고 생산적인 동시에 보수를 받는 직업에 종사하고 노동단체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정밀한 작업을 요하는 인쇄분야는 더욱 그렇다.

이처럼 인쇄분야 사업을 하면서 장애인의 고용을 돕는 곳이 있다. 바로 〈사회복지법인 너머〉가 그곳이다. 〈사회복지법인 너머〉는 장애인의 노동과 자립을 통해 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목표로 다양한 교육, 고용, 정책 개발 사업을 펼치고 있는 장애인복지 지원법인이다. 1999년 수익사업을 위한 작업장을 개설한 이후 인쇄사업, 정보문화산업, 가구산업 등 3가지 분야로 수익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2004년에는 노동부로부터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사회복지법인 너머는 신당동 사옥에, 인쇄사업분야(시설장 김용수, 이후 너머인쇄)는 가산디지털단지에 위치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너머와 너머인쇄는 엄마와 딸의 관계로 너머인쇄는 법인에서 나왔지만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국정홍보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마사회,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관련 인쇄물을 80% 정도, 출판물, 홍보지, 각종 인쇄물 등 일반인쇄물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중 인쇄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사무용 양식 및 지류 등 18개 품목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의 관련규정에서 정한 비율(서적 및 잡종인쇄물은 100분의 5 이상)만큼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이 장애인우선구매를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구매하게 된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사회적 지원 아래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이 곤란한 장애인 등 사회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다.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의 30%이상

연혁

1999. 10. 서울시 산하 사회복지법인 '태광'으로 등록
11. 사회복지법인 수익사업을 위한 작업장 개설
2000. 12. 장애인 자활을 위한 '장애인자활종합지원센터' 개소
2001. 04. 사회복지법인 '장애인의 꿈, 너머'로 명칭 변경
2002. 01. 정보화센터 운영 설치
03. 사회적 기업 '(주)오픈에스아이' 장애인고용사업 위탁
2003. 12. 부설 다음사회네트워크 사무실 개소
2004. 12. 노동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선정
2005. 01. 장애인자립작업장 가구공장 설립 (인천시 남구 소재)
03. 법인 신사옥 입주 (서울시 중구 신당동 247-8 태화빌딩)
2006. 06.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지식포털 사업
08. 근로복지공단 지식경영/통합 문서관리 시스템 구축
2007. 08. 맞춤형 휠체어 렌탈 및 리폼 서비스 제공사업
09. 한국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통합지식포털(EKP)시스템 2차 구축

사회복지법인 너머 후원안내

의료, 신발, 생필품, 가전제품, 전자제품, 의약품, 가구 등의 물품을 기부하면 해당 물품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개인 및 장애인 단체로 기부된 물품이 지원된다.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은 법인세법 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비용인정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화: (02).868-0854**

이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며, 장애인중 50%이상을 중증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현재 너머인쇄는 정부 관련 일을 대부분 하고 있어, 기자가 방문했을 때에도 우정사업본부의 연차보고서의 발송 작업으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물론 장애인우선구매제도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경쟁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은 다른 10개 업체와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선정된 업체는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회(EM실천),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용산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사)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인쇄사업장), (사)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인쇄사업장), (사)한국장애인문화인쇄협회, (사)장애인기업생산품판매지원협회(인쇄사업장), 사회복지법인 나누리(나누리장애인보호작업장),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이-워크 인쇄본부),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인쇄사업소), (사)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리드릭) 등이 있다.

김용수 대표는 "인쇄업체들이 모두 어려운데, 우리도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정부에서 우선구매제도로 5%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및 기관의 작업들이 있어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일 뿐이다"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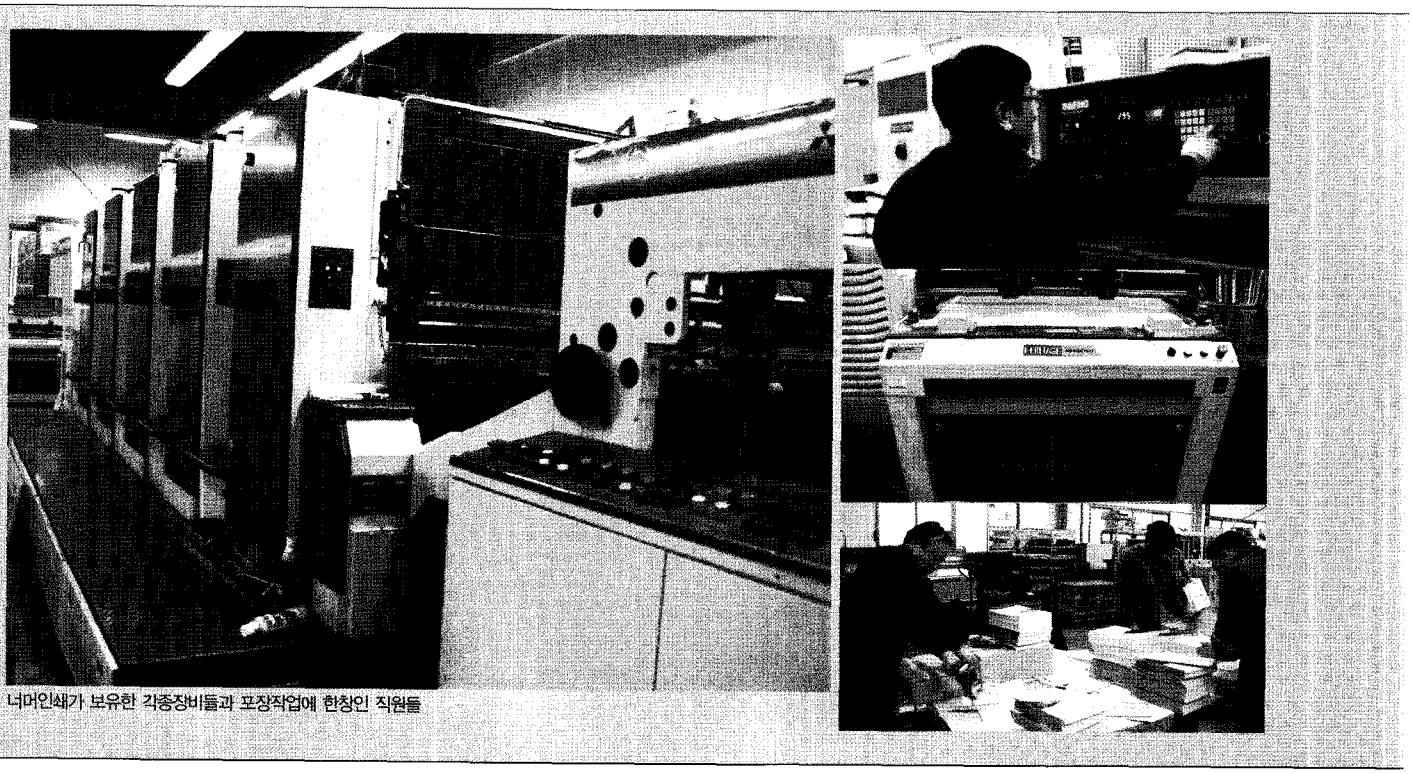
장애인보호작업장 너머인쇄와 해든DNP

김용수 대표는 현재 (주)해든DNP 대표와 너머인쇄시설장을 겸하고 있다. 인쇄업체인 (주)해든DNP를 운영하는 와중에 사단법인 너머 인쇄분야 시설장을 겸하게 된 것이다.

너머인쇄에는 총 6명의 장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4명이 중증장애인이다. 장애종류로는 뇌병변장애 2명, 지체장애 3명, 시각장애 1명 등이며, 2명은 한글 디자인 작업을, 1명은 포장 후가공 작업을, 1명은 인쇄보조를, 1명은 영업을 하고 있다. 물론 시설장인 김용수 씨도 휠체어장애인이다. 김용수 대표는 "현재 50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장애인을 의무고용하게 되어있지만 지키고 있는 곳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도 월급은 줄 테니 안 나와도 된다고 말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업체일 뿐이겠지만 좋은 목적에서 시작된 제도인만큼 많은 업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시설운영 꿈

70~80년대의 경우 외국에서 손님이 오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하곤 했다. 대표적인 곳이 정립회관, 삼육재활센터이다. 정립회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지체장애인을 위한 이용시설로, 현재 기숙사, 수영장, 재활치료실, 자립작업장 등이 운영되고 있다. 삼육재활센터는 재활병원,



너머인쇄가 보유한 각종장비들과 포장작업에 한창인 직원들

재활관, 학교, 체육관, 직업전문학교 등이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장애인관련 시설이다.

김용수 사장도 이런 꿈을 갖고 있다. "지금은 너무나 미약해서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오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작지만 10년 20년후에는 장애인들이 편히 근무하는 곳, 그리고 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곳으로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또한 "지금은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보조나 자잘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운영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TIP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센터 인쇄매체분야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에 위치한 일산직업능력개발센터는 노동부 산하 교육기관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맡고 있는 곳이다. 일산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5군데(부산, 대전, 전남, 대구)에 센터가 있으나, 인쇄매체분야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은 일산센터가 유일하다. 일산직업능력개발센터에는 크게 6개 분야(CAD/CAM, 전자, 산업모형디자인, 귀금속공예, IT, 인쇄매체)의 교육과정이 개설돼 있다. 인쇄매체분야는 인쇄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편집디자인, 그래픽, 이미지 리터칭 및 컴퓨터 주변기기 운용능력 등 인쇄기획 분야의 첨단기술을 습득해 전문가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쇄매체분야의 교육훈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자출판

일반PC 및 매킨토시의 그래픽 및 편집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문자원고, 일러스트원고, 사진원고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레이아웃을 하는 기능 및 전문서적/잡지/광고 등을 편집·출력하여 인쇄원고를 제작하는 기능을 훈련한다. 훈련내용_ 한글,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코렐드로, 페이지메이커, 그래픽, 이미지리터칭, 사진촬영 및 현상, 출력

특수인쇄

스크린인쇄 및 각종 특수인쇄 장비의 사용법을 익히고 천, 유리, 도자기 등의 각종 피인쇄체에 인쇄하는 기능을 훈련한다. 훈련내용_ 코렐드로, 일러스트, 스크린인쇄, 전사인쇄

광고출력

사진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진의 색상 보정 및 효과를 주어 대형 사진을 출력하고 간판제작에 필요한 글이나 그림을 도안·출력하여 옥내/외 광고물 및 간판/현수막을 제작하는 기능을 훈련한다. 훈련내용_ 코렐드로, 일러스트, 컷팅플로터, 실사출력, 현수막출력, 필름출력

차 한 잔 》 김용수 대표

"장애인 중심되는 인쇄사 만들 것"

처음에 어떻게 인쇄를 접하게 되었습니까?

제가 인쇄에 몸담은 지가 벌써 19년 정도 되었습니다. 1986년도에 장애인대학생연합인 '울림터'에서 소식지발행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소식지를 담당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인쇄사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인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인쇄가 나오는 과정은 정말 흥미진진하고, 한편으로는 신기했습니다.

인쇄업체를 어떻게 운영하게 되었습니까?

장애인단체 활동을 하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다보니 동기들은 운동을 하고 나는 돈을 벌어서 단체를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5년이면 어느 정도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시작했지요. 1989년도에 전산몸인쇄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다음해에 (주)해든DNP라는 개인인쇄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간에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인쇄분야가 다른 직종에 비해서 벽이 높습니다. 게다가 장애인 쪽에서는 인쇄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 역시 아는 게 뭐 있었겠습니까? 종이가 뭔지 인쇄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충무로 을지로에서 목발 짚고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충무로 바닥을 뒤져가면서 배웠죠. 그렇게 하나하나 몸으로 배웠습니다.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인쇄는 영업력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업이 떨어지면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기회가 우선 주어져야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스스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흐르면 원스톱인쇄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장애인들이 중심에 서서 일하는 곳으로요. 지금의 근무형태는 비장애인들이 중심이 되고, 장애인들이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장애인이 중심이 되서 인쇄를 할 수 있도록 꾸려나갔으면 합니다.